

老독립투사의 조국에 걸집된 '산 사전'

「獨立運動大事典」 펴낸 李康勳을



이강훈

1969년부터 20여년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해외독립운동사」 「의병항쟁사」 「독립운동전투사」 「의열투쟁사」 「항일독립운동사」 「무장독립운동사」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등을 편찬해온 老독립운동가가 마침내 「독립운동대사전」이라는 두권의 역저를 출간했다. 올해로 米壽를 맞이하는 靑靑 李康勳(尹奉吉義士 기념사업회장 · 광복회장)이 바로 그 화제의 인물.

특히 이 「독립운동대사전」은 17세 때 3·1운동에 참가한 뒤 상해임시정부에서 白凡 金九 선생을 보필하고, 1925년 북간도로 가 自治 金佐鎭 장군이 영도하던 新民府에서 독립군으로 활약하던 李翁의 필생의 노작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세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에 관한 각종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 발췌하여 둔 것들이 상당한 양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내 자신의 비망록쯤으로 간직하려던 것이었는데, 차츰 의욕이 생겨나고 이왕이면 「독립운동대사전」이라도 만들어볼까 하고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85년 제1권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고, 이번이 그 두번째가 됩니다.”

모두 2천56건의 인물 및 사건 다뤄

조선조 몰락기에서부터 1945년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사안별로 정리한 이 사전은, 한국 근·현대사의 근간을 이루는 민족운동사·독립운동사의 인물·사건을 간결하고 체계있게 정리하여 읽는 재미까지 곁들였다가 것이 사계의 한결같은 평가이

다. 제1권에는 414명의 인물과 514건의 사건, 제2권에는 696명의 인물과 412건의 사건 등, 총 2천56건에 이르는 사료를 1천8백여쪽에 실고 있다. 원고량만 해도 2백자 원고지로 2만매에 해당하며, 각권마다 수백점의 관계사진들을 수록하여 지난날의 구체적인 현실감을 살리는 한편, 수많은 사건들을 가나다順으로 분류해서 사전식으로 편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자체가 결코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료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수없이 좌절을 겪기도 했고, 남의 전기는 사실 그대로 정확해야 된다는 ‘철칙’ 때문에 밤을 꼬박 지새웠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또한 선전들의 변질을 감추고 싶어하는 유족들이나 사건·일시가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들의 유족들의 압력도 적지 않게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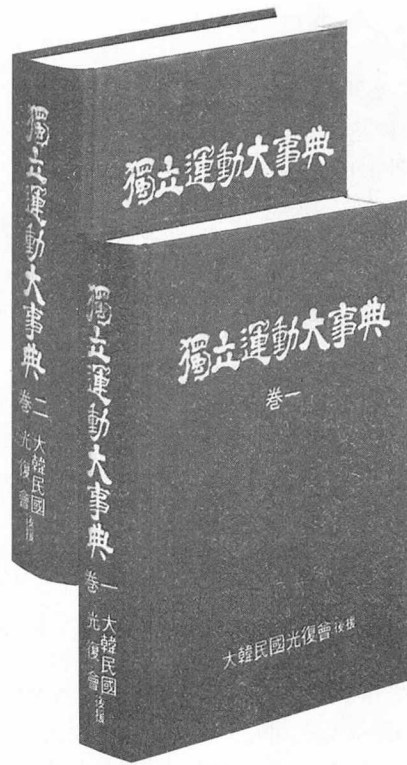
“하지만 이 사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원칙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로 항일독립운동의 업적이 제아무리 두드러진다고 해도 끝까지 절개를 지키지 못한 인사들을 제외시킨다는 것과, 둘째로 구체적인 인명과 사건을 명시하기 위해 출신·때·장소가 불분명하면 수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중 몇몇은 끝끝내 제외됐고, 그런만큼 이 사전에 수록된 사건이나 인물은 모두가 정확하다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자료들은 日帝의 무리들이 허위날조한 것이거나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李翁의 지적이다. 때문에 선인들의 숭고한 투쟁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직접 체험한 李翁으로서 독립운동에 관한 史實과 증인들이 빛을 못보고 사라져 가는 것을 보고 몹시 초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 광복회장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등으로 매우 바쁜 와중에도 매일매일의 집필시간은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어떤 때는 별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쌓인 파지 때문에 난감해 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뿌린 피와 인류역사상 가장 잔혹하기로 유명한 일제 앞에서도 당당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사라져간 애국지사들을 생각하며 이를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12년간 일본형무소서 옥살이하기도

李翁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유를 두가지로 꼽는다. 첫째로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무시한 채 벌인 조선조 말기의 부패한 당파싸움과 외교정책 때문이고, 둘째로는 가쓰라·태프트 密約에서 알 수 있듯 ‘나뉘먹기식’의 외세의 입김 때문이라고. 그중에서도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것은 자국의 식량확보와 갖출발한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 상품관료확보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李翁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던 李完用이 향리(강원도 김화)에 내려온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끊어오르는 의분을 참지 못해 “대국노 이완용을 죽여라”고 외친 것이 화근이 되어 日警의 주목을 받게 됐다. 그때부터 상해임시정부에서는 金九 선생을, 북간도 신민부에서는 金佐鎭 장군을 보필하는 한편, 틈틈이 우리 동포들을 상대로 민족교육에 열성을 다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33년 마침내 李翁은 그 자신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커다란 일획을 그게 된다. 日本大使 有吉 일행을 暴殺하려던 六三亭사건이 그것.

六三亭사건이란 상해임시정부와 당시 李翁이 소속되어 있던 南華韓人青年聯盟에 의해서 사전계획되고 거사된 사건은 아니다. 李翁이 존경하던 金佐鎭 장군도 일제의 무리와 합작한 凶漢에게 저격을 받아 서거하고 일제에 대한 증오와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해 白正基義士와 단 둘이서 ‘上海武昌路 일본요정 六三亭’에

수류탄과 권총을 가지고 접근하다 日警에게 체포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일본으로 압송되어 8·15해방까지 12년 동안이나 그곳 형무소에서 영어의 몸이 됐다. 해방 후 1946년에는 尹奉吉, 李奉昌, 白正基의사의 유해를 본국으로 봉환해 국민장을 주선한 것도 널리 알려진 李翁의 일화이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독립운동대사전」 제3권의 집필을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또 앞으로 작고할 애국지사들의 업적도 史乘에 올리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죽으면 누군가 卷四·卷五를 계속 간행해야 하리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李翁은 지적한다. 8·15 해방 뒤 미·소의 대립으로 조국은 두 동강이 났고, 지금도 그 여파 때문에 남북통일이나 민주화의 길은 요원하다는 것이 그가 현세를 바라보는 시국관이다.

“하루바빠 자주·평화·민주의 기치 아래 불구국가가 아닌 온전한 국가로 우리의 외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젊은이들은 영화배우나 탤런트는 알아도 독립운동사나 독립지사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행 교육제도도 문제지만, 보다 더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사가 정리돼야 우리나라의 민족정기가 살아납니다.”

「독립운동대사전」 1권 첫장에는 한국 最古의 태극기(미국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소장)와 애국가를 실음으로써 老독립투사의 조국애와 민족애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사전을 두고, 慎鏞廈(서울대)교수는 “선생의 조국애와 민족애의 결정체로서 그가 독립운동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기술된 것은 모두 정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老兵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라고 맥아더장군은 말했지만, 권력의 착취와 억압 없는 사회를 소망하고 있는 老독립투사의 업적이 우리 역사에 산 교훈을 던져주는 ‘寶典’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반경환 기자